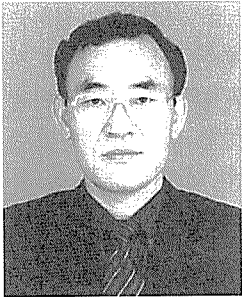


■ 참 관 기 ■

전자·정보기술인클럽 창립 5주년 자축연을 마치고



(사) 전자·정보기술인 클럽
사무국장 김 덕 진

지난 7월 4일 전자·정보기술인클럽 창립5주년기념 자축연에 참석했다. 자축연에는 클럽회원인 양승택정통부장관이 최근 UN총회에서 행한 기조연설결과에 대한 보고를 겸한 축사가 있었으며, 고문회원인 김기형 초대과기처장관님(현 한국도자기문화진흥협회 회장), 서정욱 전과기처장관님(현 세계인터넷청소년연맹 총재), 오명 전체신부장관님(현 아주대학교 총장)의 격려사가 있었고, 클럽운영에 과거 1년간 사무국 운영경비의 60%이상을 후원해 주는 등 공로가 많은 최태현(태산엘씨디 대표이사)회원에게 감사패 증정이 있었으며, 임원들이 준비한 선물을 참석회원 전원(55명여명)과 내빈(20여명)에게 주기도 하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으며, 그동안 고인이 된 3명의 회원에 대한 명복을 기원하는 묵념이 있었다.

또한, 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66년12월초에 발표한 상공부의 전자공업 육성책에 의하여 67년 2월에 설립되고, 즉시 전자공업진흥법안을 상공부에 제시함), 한국전자산업진흥회(69년 2월에 발효한 전자공업진흥법에 의거, 정부가 전자공업진흥기관으로 지정(당시 국립공업연구소, 과학기술연구소도 지정)하고 정책자금을 지원한 한국정밀기기센타 전자진흥부와 한국전자제품수출조합이 합병하면서 76년에 설립됨), 전자신문사, 광전자(주)등에서 축하 화환을 보내주어 관련기관과의 유대강화를 이루었다.

전자정보기술인클럽은, 지금은 고인이 된 고 이형근회원(전 부리전기



로공업 대표이사)의 10여년에 걸친 끊임없는 권유에 따라, 95년 5월에 현 윤정우부회장이 당시 전자부품연구원의 전문위원 겸 중소기업지원센터장을 하면서, 발기의 뜻을 주변 전자산업계에 종사하는 기술계출신 임원들에게 문의하였더니, 조대연회원(전 나우정밀 회장)은 공공수익사업을 할 때는 1억원의 씨드머니를 내 놓겠다는 등 10여명이 찬성을 함으로 “발기문”을 만들어 계속 의견을 물었으며, 찬성자는 계속 증가하였다.

그런 과정에서, 76년 7월에, 삼성전자의 강진구회장이 이상열회원(당시 삼성경제연구소 소장/전 상공부 전자공업국장)의 주선으로 한번 만나자고 하여, 강희장실에서 10여명이 모였고, 그때 발기인회를 만들자고 결의하면서, 회장을 강희장이 맡아줄 것을 부탁드렸더니, 강희장 왈, 나는 늙었고, 삼성에서 공식적으로 맡은 관련단

체의 회장직이 30개에 달하여 정신이 없을 정도로 바쁘니, 뒤에서 적극 후원을 할터이니, 엘지가 전자산업의 선발주자이고 여기 모인 사람중에 나 이외엔 제일 년장자인 이희중 엘지산전의 대표이사 부회장이 회장을 맡아 추진하도록 간곡히 당부를 하여 이희중 현 클럽회장이 발기인회 회장을 맡게 되었고, 강진구회장은 발기인회 명예회장으로 추대하면서 강력한 후원을 받기로 한 후, 발기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300명이 넘

을 때, 창립총회를 하기로 하여, 익년인 77년 2월 1일에 창립총회를 하게되니, 그때까지의 발기인회 회원은 369명이며, 발기인총회에 참석자가 96명에 달하였다.

발기인회에선 정관안을 만들고, 창립총회준비를 하여야 하는데, 모임장소가 없어 고민을 하니, 유명옥회원(서두로직 대표이사)이 자기사무실의 도서실을 사용토록 해 주어 그곳에서 신상업회원(전 나래씨큐리티 상무이사, 현 용인대학교 교수)이 총무를 맡고, 조대연(전 나우정밀 회장), 박준호(씨티아이 연구소장), 정인중(전 모토로라 사장), 임중재(전 콘트롤데이터 회장), 유명옥(서두로직 대표이사)등 회원이 저녁에 모여 봉사를 하고, 윤정우회원은 가끔 전자부품연구원이 소개한 평택에서 퇴근길에 참여를 하였다.

여기 발기인회의 모임에서 정관안을 만들 때,



전자산업발전에 공로가 큰 김기형 초대과기처 장관(66년 여름에, 당시 미국 대학교수로서 내한하여 한국에서 전자공업을 육성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박정희대통령에게 건의 및 상공부 전기공업과 통신공업계(계장은 현 클럽 부회장 윤정우)에서 전자공업육성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각종자료(일본의 전자공업진흥10년사와 아이디어, 자유무역지역설치를 제공함), 서정욱 전과기부장관(67년에 군용무전기의 국산화 등 전자제품의 개발추진), 오원철 전청와대수석비서관(외국인과의 합작투자 전자업체에 대한 수출실적량의 내국인 주식비율만큼 국내판매를 허용하는 시책을 대통령에게 보고 해결등 추진), 홍성좌 전상공부차관(청와대 수출확대회의에 전자공업발전상황을 수시 보고 및 전자공업진흥법에 의한 신규개발지정품용 제조설비와 원자재에 대한 수입관세면제 등 추진), 최순달 전체신부장관(체신부에서도 전자산업육성에 참여토록 분위기조성 등 추진), 오명 전체신부장관(향후전자산업발전시책, 특히 칼라TV방송, 반도체산업개발육성책수립 등 추진), 경상현 전정통부장관(ETRI소장 재임 시 전자교환기개발등 추진)등 7분을 고문회원으로 추대키로 하였고, 대한상공회의소 내 상의클럽에서 개최한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통과시키면서, 고문회원으로 추대하였다.

창립총회에서의 축사에서 김기형 초대과기처 장관은 “여기 모인 회원들이 전자산업발전에 마지막 봉사를 하여야 천당에 갈수 있다”고 역설을 하셔서, 큰 폭소와 박수가 있었으며, 앞으

로 10주년기념행사 때까지는 그 후의 정부기관 공로자와 후시 누락된 공로자 및 그간의 클럽 운영발전에 공로가 큰 회원을 고문회원으로 추대하게 될 예정이다.

그후, 정통부에 사단법인 설립인가신청을 하여 96년 7월 7일자로 법인설립인가 및 정관을 승인 받았으며, 7월 7일이 창립기념일이나, 금년은 7월 7일이 일요일이라 4일로 당겨서 행사를 하였다.

그동안, 5년간의 주요사업실적은,

(1)기술세미나 5회개최,

(2)해외기술세미나참가 1회

*참가세미나명: 미국 IEC FORUM

*참가자: 박준호, 윤정우회원

*참가권고 및 비용부담: 김훈(전씨티아이 회장)회원

*참가권고사유: 50년 역사를 갖고 있는 우리 클럽과 비슷한 모임체에서 행하는 세미나를 보고, 우리도 10년내에 그렇게 되자

*참가효과: 합동서울FORUM개최방안을 상호 검토키로 합의 (오명고문회원과 협의한 바 있음)

*참고사항: IEC는 International Engineering Consortium(www.iec.org)

클럽 소식지 제7호에 “미국 IEC방문 및 NCF97 참관 보고”

(3) 29명의 회원이 25개 중소기업 기술지도

(4) 창업투자지원 세미나 5회 개최

(5) 창투에인절 모임 매달 개최중

- (6) 12개 사에 대한 산업현장시찰 및 정보교환
- (7) 매년 회원수첩 발행
- (8) 클럽소식지 36회 발간
- (9) 70여개 산학연관기관과 협력체제 조성중
- (10) 홈페이지(www.enicclub.or.kr) 개설 및 보완중
- (11) 전자정보기술인 인명록 홈페이지에 수록중
- (12) 회원의 휴식 및 오락(장기, 바둑등)코너 설치
- (13) 회원 이메일, 홈페이지 주소를 클럽 홈페이지에 수록중
- (14) 회원 인터넷 배너광고 게재중
- (15) 회원 PC자습실 개설
- (16) 회원 창업지원실 무료개설
- (17) 클럽 방문회원회에 대한 증식제공
- (18) 9개분과위원회 운영(기술지원, 창업투자지원, 중소기업지원, 클럽소식지발간, 신규회원유치, 회원봉사, 산업현장시찰, 창립기념행사, 회원사업후원등) 등을 하고 있다.

회원도 점차 증가하여 개인회원은, 고문회원 7명, 정회원 270명, 준회원 9명, 특별회원 29명으로 315명이며, 법인회원은 7개 사다.

특히 해외거주 회원으로 미국의 실리콘베리에서 5명(김완희박사, 강창술박사, 이종문박사, 김혜봉박사, 김기용 전텔레비디오부사장), LA에서 1명(최문택TRW RF센타 선임연구원), 뉴욕에서 1명(조언호 VO상사대표)등이 참여하여 국제화가 시작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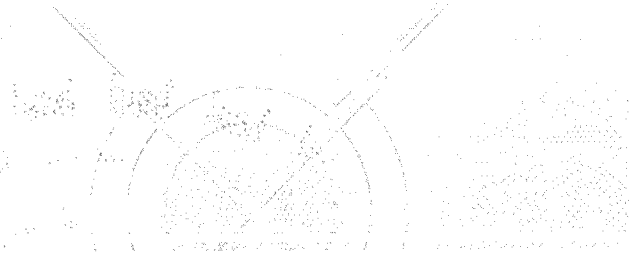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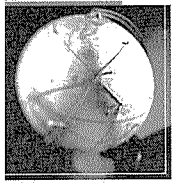
반면, 5년동안에 타개한 회원이 이형근(전 부리전기로공업 사장)회원, 이상선(전 중소기업

인증센터 심사원)회원, 김영준(전 일레닷컴 대표이사)회원으로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게 한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 그 유족들을 위로하고, 그 집안에 평화와 행복이 깃들길 클럽회원들은 모두 기원하고 있다.

클럽의 앞으로의 과제는 정관에 명시한 아래 사업을 얼마나 빨리 달성하느냐 하는 것인데, 앞에서 언급한 50여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미국의 IEC(미국의 모토로라 창설자가 주장 및 후원하여 출발함)를 보면서, 서둘지 말고 침착하게 차곡 차곡 추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행히 뜻있는 후원회원인 김정식회원(대덕산업주식회사 회장/현재의 클럽사무실 무상대여, 실버회원의 자습용PC기증, 내방 회원들에게 증식제공 등)같은 회원이 늘어나는 것이 클럽창립시의 여러 사람들의 꿈과 미국IEC와 합동으로 서울FORUM을 개최하는 등을 앞당길 것이다.

1.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보교환, 발표 및 토론회 개최 등의 사업.
2. 선진최신기술정보수집 및 동향과약을 위한 국내외 기술조사 등의 사업.
3. 전자정보산업체의 애로기술 타개를 위한 지도 등의 사업.
4. 국내외 관계기관, 단체 및 관련업계와의 제휴 및 협조 등의 사업.
5. 회원간의 친목도모 및 회원의 복리후생 등의 사업.



6. 전자정보산업체에 기술인력 및 신기술지원 등의 사업.
7. 회원의 창업지원 등의 사업.
8. 산업관련 전문교육 등의 사업.
9. 산업발전을 위한 공익사업.
10. 연구개발지원 등의 사업.
11. 장학기금운영에 관한 사업.
12. 기타 본 클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오늘의 창립기념사축연은 66년 12월에 한국 정부가 전자공업을 육성하겠다고 정책발표를 할 당시 연간 400만불의 수출밖에 못 되었는데, 그 후 40여년이 지난 지금 연간 700억불의 수출 규모가 되었다.

전자정보산업이 한국경제를 끌고 가는 산업이 되는데 그 일익을 맡았던 기술인클럽회원들이 평생을 몸 바쳤고, 자식 낳고, 기르고, 출가시켰으니, 잊을래야 잊을수 없는 전자정보산업의 끊임없는 발전을 위하여 앞으로 얼마나 봉사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다.

김기형 초대과학기술처장관이 100세까지 건강유지하면서 전자정보산업발전에 계속 봉사하는 격려의 말씀, 요즘은 “세상을 하직하는 날이 은퇴하는 날”이라고 주장하는 80대에 가까운 미국거주회원 김완희박사, 강창술박사의 말씀과 오원철 전 청와대 수석비서관이 개인 홈페이지(www.owonchol.pe.kr)를 개설하고 매주 글을 쓰는 것을 볼 때마다, 무엇인가 문득 마음이 다듬어 지고, 용기가 용솟음 친다고 한다.

한국 전자산업진흥회의 이희준 상무님 및 최영훈 이사님께서도 당 클럽의 취지와 목적을 이해하시고 회원이 되어 주셨음은 무한한 영광이며 앞으로 양 기관이 서로 협력하여 우리나라의 전자정보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

당 클럽의 홈페이지(www.eniclub.or.kr)에는 그 정관에 목적과 사업내용 등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개인회원이나 법인회원으로 동참해 주시면 큰 영광이겠습니다.